



Thailand

방콕지사

무알코올 맥주 소비세 증액 예정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우려

최근 태국 소비세국은 2020년 2분기 내각 승인을 위하여 무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음료수에 대한 세금 증액 안건의 내각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태국 소비세국의 총책임자인 파차라 마눈타실빠(Patchara Anuntasilpa)는 “무알코올 맥주 세금은 알코올 맥주보다는 낮지만 탄산음료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책정할 것”이라며 “무알코올 맥주가 젊은이들에게 음주를 권유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무알코올 맥주의 섭취가 결국에는

주류 수요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보건국의 우려가 높아져,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세금 인상을 고려하게 되었다”라고 경위를 밝혔다.

또한 태국 소비세국은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세금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희망 소매가격의 14%로 세금을 증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의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술을 함유한 초콜릿과 맥주가 포함된 캔디는 취할 우려가 없는 형태로 섭취되므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트륨 함량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

한편 태국에서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적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신장 관련 질환 및 고혈압 등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예방책으로 소금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세국의 담당자인 파차라(Mr. Patchara)는 “소금세 부과 정책을 확정하기 전 인당 일일 적정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공고를 기다리는 중이며 공고 이후에 제조 기업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과

고, 적정 나트륨을 포함한 제품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소비세국에 따르면 즉석식품이 소금세 부과 대상이며 조미료, 신선식품 및 스낵류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금세는 나트륨 함량에 따라 초과 누적 징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태국은 아세안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트랜스지방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 1월부터 트랜스지방(Trans Fat)의 유통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트랜스지방 식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Key Point

태국 시장의 특수한 조건을 반드시 검토 후 진출해야

태국은 불교관련 주요 행사 시에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주류판매 금지시간이 적용돼 편의점, 슈퍼마켓, 와인매장 등에서는 정부에서 허용한 시간대에만 술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주류관련 직접적인 노출 및 광고는 금지하고 있는 등 건강에 해가 되는 문제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

주류 대체 식품으로 수요와 인기가 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태국 내 주요 주류 회사들이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알코올 맥주도 주류 수요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태국은 비단 트랜스지방, 설탕과 같은 직접적으로 건강상에 위협을 주는 식품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제재하여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더불어 수출국인 현지의 흐름을 읽고 건강한 식품(음료, 주류) 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흐름에 부합하는 프로모션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연간 약 2천만 볼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는 인스턴트라면 제품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나트륨 함유량을 낮춘 신제품 출시나 기존 제품의 나트륨 함유량을 낮추기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